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추경 편성

전북도, 3월 안에 편성·7억1500만원 재난관리기금 긴급 투입 예정

전북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위해 3월 안에 비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7억1,5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4일 '코로나19 대응 10대 특별대책 담화문'을 통해 강조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활동 지원과 위축된 경기에 활력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본격화한 것이다.

전북도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3월 도의회 의결을 목표로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양상에 따른 선제적 조치 차원으로, 그동안 5월경에 실시했던 것에 비하면 2개월 앞당겨 실시되는 것이다.

전북도는 보조금 심사 등 사전절차를 서둘러 완료하고, 이번 주말까지 예산안 검토 확정을 거쳐 3월 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추경은 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와 코로나 피해 확산방지 대책 등 경제안정 지원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민생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부부가 추가 내시한 국고보조사업도 담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지출 수단을 동원해 경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도 긴급 투입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전복도가 해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해 일정액을 적립한 기금으로서, 그동안 주로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사용됐으나 송하진 지사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10대 특별대책'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기금은 총 7억1,500만원으로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도내 대학의 중국입국 유학생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구입에 사용된다. 3억1,000만원은 환자는 물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펼칠 때 필요한 소독티슈 3,240개, 소독제 722개, 음압이송용 들것 24대 구입비다.

또한, 개학을 앞두고 중국입국 유학생 관리가 필요한 도내 10개 대학이 위치한 5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3억8천만 원을 지원해 시군비 합산 총 7억 6,000만원을 각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청사 내에 열화상카메라도 설치한다. 전염우려자를 사전 차단해 도청 방문객과 직원들이 안전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현재 확보된 재정의 신속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정부

목표 65.0%보다 2.0% 높은 67%로 설정해 지난해 3조2,923억원보다 5,369억원(16.3%)이 증가한 3조8,292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지역경제에 과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일자리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1분기까지는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집행이 어려운 신규사업보다는 다소 집행 여력이 많은 이월사업을 중점 집행한다.

도는 신속집행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최용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 일일 집행상황 모니터링과 5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책임자 지정, 부진 실적과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방역활동 예산과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긴급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추경편성 전이라도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보호는 물론, 소방대원들의 현장 구조구급 활동과 개학을 앞둔 도내 대학들의 중국입국 유학생 감염예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적기적소에 신속히 재정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 저지를 통한 도민 안전과 경제 회생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한국소방시설협회 전북도회, 마스크 5천개 기부

도내 취약계층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전달

한국소방시설협회 전북도회(회장 백부현)는 도내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 사회복지에 마스크 5천개를 기증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명을 넘어섰고, 전북의 확진자 3명을 포함해 우리나라도 천 명을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전환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증된 마스크는 도내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한국시설협회 전북도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마스크를 기증한 한국소방시설협회 전북도회는 소방시설업의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 등 소방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에 기여하고자 2008년에 설립되어 현재 257개 회원사 1,375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코로나19 음압이송용 들것 배치,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메뉴얼 보급 등 코로나19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기증한 한국소방시설협회 전북도회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등 모든 도민이 감염예방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389억원 지급

시·군 농협지부 통해 7만5794명에게 지급

전북도(농축수산식품국)는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389억원을 26일부터 시·군 농협지부를 통해 7만5,794명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9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이 18만 9,994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당 지급단가 36만7,160원(80kg당 지급단가 5,480원)을 지급한다.

쌀 변동직불금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9년산을 마지막으로 지급이 종료된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조건·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기

본형공익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쌀·조건·변동,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하여 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고 경관보전, 친환경, 밭농업직불의 논이모작(논활용)직불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운영되며 종전대로 개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기본형공익직불제의 소규모농가직불금은 지급대상인 농업인이 아닌 농가단위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하여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하고 있고 지급단가는 농식품부가 고시할 계획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되, 기존 직불금 농업인은 논 30ha·밭 4ha, 농업법인은 논 50ha·밭 10ha까지 지급한다.

한편,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친환경·경관보전·밭농업 논이모작(논활용) 직불제는 종전대로 지급받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인 소규모농가·면적직불금과 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다.

공익직불제는 4월말에서 5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받고 7~10월중 신청 농업인에 대한 이행준수 사항을 점검해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을 농업인들은 직불금 신청 이전에 국립농산물관리관인 시군사무소(이하 농관원)에 3월말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도내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

26일 전주시 신천지 하늘문화센터에서 전북도 관계자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행정명령을 집행해 시설을 폐쇄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도, AI 차단방역 강화 위해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시행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면적 50제곱미터(㎡) 이상 닭·오리 사육 농가는 빈 농장을 깨끗이 청소·소독하고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입식하기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입식 사전신고제는 그간 권고사항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지난해 가축전염

병예방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이 제도를 통해 농가 사육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농장에서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겨울 철새 북상시기

지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오리사육제한 종료, 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실험실 검사 병행, 전통시장 산닭 판매소 월 2회 휴업·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 석 대 학 교 평생교육원

환 영

스피치 · 긴장해소 · 웃음치료(힐링) · 면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각 평생교육원에서 출결해 주, 야간반으로 학습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웃음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TV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20학년도 1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군산, 부안, 서원
전북과학대학교	스피치 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정읍, 고창
원광보건대학교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익산, 완주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전제)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합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